

제11회
Ars현악4중주단 정기연주회

M. Ravel
D. Shostakovich



Vn. 조현미

Va. 이성호

Vn. 권남희

Vc. 하경희



피아노협연 조현선

2011. 6. 17. (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후원 /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사)부산음악협회 + 김용태내과 + 대연성모안과
- 주최 / Jung매니지먼트 (공연문의 : 011-589-3111)
- 입장료 / 무료

본 공연은 2011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의 일부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ProFile

Violin 1
조현미



- 서울대학교 음대 및 동대학원 졸업
- 부산관현악단, 을숙도 교향악단 악장 역임
- 현) Ars Quartet 리더, 신라대 음악과 교수

Violin 2
권남희



- 연세대학교 음대 및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
- 현) 부산시향 부수석, 부산신포니에타단원, 앙상블디마레 단원, 신라대 음악과 외래교수

Viola
이성호



- 한양대학교 음대 졸업
- 하노버 국립음대 졸업 및 베를린 국립음대 수료
- 현) 부산시향 부수석
부산대, 동아대, 동의대, 신라대 음악과 외래교수

V. Cello
하경희



- 연세대학교 음대 졸업
- 코리아나 심포니, 을숙도 교향악단 수석 역임
- 현) 신라대 음악과 외래교수



Piano 협연
조현선

활발하고 폭넓게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현선은 독주회 14회, Muse Trio, Muse Ensemble 연주, 미국 Delta Omicron 초청 연주, 광복 50주년기념 대한민국 작곡대전, 한국작곡가협회, 한국피아노학회, 한국여성작곡가회, 부산국제음악제, 제 1회 부산현대음악제 협연, 광주국제음악제, 대구음악제, 평영음악제, 고은 사진미술관 초청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 김선주, 이철수, 박승, Samuel Adler),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박성원, 오충근), 을숙도교향악단(지휘 김인호), Mozart 챔버오케스트라(지휘 김대진), 마산시립교향악단(지휘 배진현), 부산 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 윤상운), 경성대 챔버오케스트라, Moscow String Quartet, New York Philharmonic String Quartet, Ars String Quartet과 협연을 갖는 등 한국, 독일, 미국, 일본 등지에서 160여회의 연주회를 가졌으며 부산음악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독일 국립 쾰른 음악대학 (Staatliche Hochschule fuer Musik in Koeln) 피아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고, 현재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로 있다.

M. Ravel String Quartet in F Major
(1875-1937)

- I. Allegro moderato. Très doux (조금 빠르게)
- II. Assez vif. Très rythmé (매우 생동감있고 울동적으로)
- III. Très Lent (아주 부드럽게)
- IV. Vif et agité (생기있고 활발하게)

- Intermission -

D. Shostakovich Piano Quintet in g minor, op.57
(1905-1975)

- I. Prelude (Lento)
- II. Fugue (Adagio)
- III. Scherzo (Allegretto)
- IV. Intermezzo (Lento)
- V. Finale (Allegretto)

라벨 / 현악4중주

〈라벨〉은 드뷔시 이후의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 작곡가이다. 그의 음악에는 유희적인 놀이와 고풍스러운 멋, 감각적인 것과 지적인 것, 자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 등이 잘 조화되어 있다. 멜로디는 자연적이면서도 분명한 선을 지닌다. 3개의 실내악 작품을 남겼는데, 피아노 3중주와 현악 4중주는 그의 음악적 생애에 한 획을 긋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 하겠다. 이전에 그는 세헤라자드와 물의 희롱을 발표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 이후 현악 4중주를 발표함으로써 각광받는 작곡가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히게 되었다.

이 현악 4중주는 라벨 자신이 '음악의 구성 의지에 응답한 최초의 작품'이라 언급했듯, 고전적인 화성에 드뷔시가 도입한 선법을 교묘하게 결합하고 있다. 4중주라는 것은 비교적 대규모 구성의 작품이므로 열정적인 표현이나 활발한 주제도 그 속에 담을 수 있으나,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있다. 1904년에 초연되어 호평받았고, 포레에게 헌정되었다.

쇼스타코비치 / 피아노5중주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5중주 오프닝을 들으면 어느 거장이 작곡한 성숙한 곡 같은 느낌을 받지만, 이 곡은 그의 초창기 곡들 중 한 곡이다. 그의 네번째 실내악곡이며, 이 외에도 14개의 현악 4중주, 피아노 3중주 바이올린, 비올라 소나타 등이 뒤를 잇는다. 많은 쇼스타코비치의 음악들이 그 러하듯이 피아노 5중주 또한 당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낸다.

이 곡은 음울하게 간단한 형식을 지닌 특히 피아노 연주가 더 그러한데 곡의 라인들이 2옥타브 아래위의 같은 음을 연주하고, 사이에 inter-part된 작곡법은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대중적이고 간단한 특징 덕분에 초연 후 큰 인기를 얻었다. 쇼스타코비치 실내악곡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1940년에 작곡되었다. 모두 5개 악장 구성이며 소나타 형식은 전혀없고 모음곡 형식을 취하며 중단없이 계속 연주된다. 맑고 투철한 철학적 서정과 고전 원리에 따라 간결하면서 균형감을 지닌 논리적 전개가 펼쳐진다.

아르스 콤파넬은

2001년 창단하여 정기연주회 10회, 부산MBC 청사기념 〈제44회 목요일음악회〉 초청연주, 부산음악협회 주최 〈실내악 축제〉, 결러리 자미원 초청 〈송년음악회〉, 부산시립 미술관 초청연주, 봉생병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음악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그리고 수 차례의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